해가 쏘아댄다, 금빛 화살을

최정웅

봄이 오면
해가 쏘아댄다, 금빛 화살을.
산과 들
강과 바다에

수천수만의
나무들이 깨어난다
들꽃들이 피어난다
새들이 태어난다
강물이 출렁거린다.

해가 쏘아댄다, 금빛 화살을.

새의 목소리도 초록빛이다, 숲 속을 나는
들꽃의 향기도 초록빛이다, 별판에 피어나는
강물 소리도 초록빛이다, 바다로 흘러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초록빛이다, 강둑을 달리는.

해가 쏘아댄다, 금빛 화살을.

산골 마을과 도시의 뒷골목
그리고 섬 마을에

행복을 쏘아댄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을 쏘아댄다, 외로운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쏘아댄다,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쏘아댄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가슴에.

봄이 오면
외롭지 않다, 내 가슴도 초록 빛깔이다.

약력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1973), 전남문학상·샘터시조상·여수해양문학상 대상, 남도문학회 고문, 시집 '억새의 노래'·'어부의 노래'·'갈매기의 노래'·'다도해의 아침'·'천사섬 신안' 등 출간.

감상 노트

4월은 봄이다. 태양의 금빛 화살에 산과 들 강, 바다에 수천수만의 나무들이 깨어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난다. 물 오른 나무 등걸에서는 여린 부리의 새들이 태어나고, 세월 머금은 속 깊은 강물도 따스한 바람결에 물비늘 반짝인다. '불모의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4월은 잔인하다' 고도 했지만, 여전히 싱그러운 계절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웃음처럼 희망이 무르익는 봄날에 시인 따라 모두의 가슴도 초록 빛깔로 물들어 간다.

요술처럼

해님 만나 보송해진
이불을 덮고 자면

요술처럼
햇살이 내 몸으로 들어와

해 닮은 해바라기 꽃
벙긋벙긋
피워줄 것 같아

고정선

약력

한국시조시인협회 시조대중화위원회 부위원장, 아동문학시대 및 별밭·율격 동인 제8회(동시)·제10회(시조) 목포문학상·남도작가상 외 수상, 동시집 '먹장구름 심술보'·시집 '비는 산을 울리고' 등 출간.

감상 노트

시는 '최선의 말' 이라 했던가. 티 없이 맑은 시심이 전해와 읽는 이들에게 생각의 여백과 공감을 일으키며 카타르시스의 꽃씨를 안겨준다.

파란 하늘 어디 갔나

흰구름 여유로운 파란하늘 어디 갔나
싱그러얄 허공은 잿빛 장막 드리우고
우뚝한
아파트 숲만 눈 속 가득 흐릿하다

고향처럼 달려가던 첩첩(疊疊)산의 자태마저
둘러싸인 먼지 오염 물리도록 들이키며
생계를
짓이겨가는 숨 막히는 몸부림들

살만큼 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커나는 총생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마스크
갑갑한 몰골 어디론가 부산하다

김정래

약력

자유문학 시조 부문 신인상 등단(1998), 시집 '화포에는 사랑이 있다'·'바람세월'·'허공에다 그린 그림' 등 출간.

감상 노트

꿈을 안고 커가는 후세에게 파란 하늘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기성세대의 책임감에 새삼 안쓰러워지고….

벚꽃

닿지 않는 오랜 기다림
가지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깊은 날을 잡아당겨 묵어두어
항상 품안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가슴 한편에 머물렀던 그 꽃 여자
저녁노을 한줌에
눈길 운명처럼 열려서
생의 흰빛으로 눈부시게 떨린다.
수십 여일 짧은 생은
단아한 찬란함이다
언젠가 다시 찾아와 앉을 그 자리에
하나 둘 날리는 불꽃이다
마음의 눈 버리지 못하고
꽃의 살갗으로 가슴을 흔든다.

정관웅

약력

'월간 시see 추천시인상' 당선 등단, 전남문인협회 편집국장·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집 '그 남자의 국화빵' 등 출간.

감상 노트

몸을 푼 삼월을 맞아 철 이른 나물바구니에 매화 향기 담아와 축하 문패 닦아 놓고 경칩 절기 허벅진 기원 하르르 쏟아야할 때인가 보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8256-3339	해남지사	010-8181-2627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